



▲청관회가 제거된 후 8년래 소란받던 파룬궁 진상부스는 원래의 면모를 회복했다.

홍콩 청관회 해체 역사의 필연

[밍후이왕] 2021년 첫날, 거리에서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폭로해 온 홍콩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다른 점을 발견했다. 8년간 수련생들을 방해하고 공격해 온 중국공산당 산하 단체 홍콩청관회(香港青年關愛協會: HKYCA)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청관회는 강택민 전 중공당서기가 만든 '610 사무실'의 홍콩지부로, 2012년 량전잉(梁振英) 전 홍콩 행정장관 부임 직전부터 파룬궁수련생들을 대상으로 방해 공작을 일삼았다.

홍콩 파룬따파협회 량전(梁珍) 대변인은 청관회가 8년간 파룬궁부스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수련생들을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청관회의 해체는 역사의 필연이고, 선악에 보응이 있다는 것과 정의는 필연코 승리한다는 천리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청관회 “요란하게” 해체하다

청관회 해체에 관한 정보는 2020

년 12월 29일 좌우 한 민주화 지지자에게서 처음 나왔다. 그는 또 청관회 최후의 날인 31일 오후, 코즈웨이베이 파룬궁 부스 부근에서 주요 언론을 초청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한편, 한 신제 주민도 언론에 청관회의 해체를 확인했다.

청관회의 해체를 “요란하게” 선포한 것에 대해 민중들은 믿기 어려웠다. 31일 오후 코즈웨이베이 파룬궁 부스를 홍웨이청(洪偉成), 샤오샤오룽(肖晓容), 천진바오(陳進寶) 등 청관회 지도자들이 모두 부근에서 감시했다. 3시, 청관회 회원은 코즈웨이베이에서 장기간 파룬궁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관회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서 한마디 말도 하지않고 떠나갔다.

홍콩파룬궁수련생이 표시하는데 의하며 몽콕, 흥흥, 침사추이, 완차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청관회 회원들은 탁자, 금속 상자와 함께 그들의 배너와 포스터를 거의 동시에 제거했

다. 완차이에서 파룬궁을 모함하는 현수막을 놓았던 “창(傘)”도 비웠다.

“청관회”가 해체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각계에서 조사하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홍콩 파룬따파협회: 진상알리기를 견지

홍콩 파룬따파협회 량전 대변인은 청관회는 지난 8년간, 파룬궁에 먹칠하고, 파룬궁수련생들을 모함했다. 심지어 거리에 “가짜 영당(假靈堂)”을 만들어 놓고 파룬궁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을 모함하는 등 아주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청관회는 중공사악한 정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가 쓴 문화대혁명식의 먹칠과 유망 탄압수법은 중공의 사악함을 폭로했다. 그의 해체는 역사의 필연이다. 선악에 보응이 있다는 것과 정의는 필연코 승리한다는 천리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량전은 또 강조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금후 계속해서 진상알리기를 견지하고, 중공폭정을 폭로하고, 민중을 도와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출하게 하고 정의와 양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에서 박사공부를 하는 명닝

“한차례 무한 폐렴이 나를 철저히 바꿨습니다”

무한에서 출생하고 자란 중국의 90 대 투롱 (가명) 은 미국의 목소리에서 말했다: “한차례

무한 폐렴이 나를 철저히 바꿨습니다, 만약 돌파프로그램을 쓸 수 없었더라면, 만약 일부분 해외의 친구가 저에게 진상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화장로에 들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성봉쇄를 한 날에 그는 많은 것을 사고 했다. “그들이 북경에서 하층인구를 청리할때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아주

노력하고 있고, 나는 하층인구가 아니기에 나는 청리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들이 신강에서 노개영을 할때도 나는 소수민족도 아니고, 종교신앙도 없기에 나는 청리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홍콩인을 아주 동정하지만 나는 거리에 나가 항의하지 않을 것이니 나랑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번일은 나의 고향에서 발생했다. 나의 주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사망한 사람도 있다. 때문에 나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사망자를 위해 소리 낼 것이다.”

미국에서 박사공부를 하던 명닝도 북경에서 하층인구를 내쫓는 영상을 보고 충동을 받아 진상을 요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내가 상상했던 북경정부와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국내에서 전혀 검색되지 않았고, 그재서야 나는 천천히 중국매체가 정보를 은폐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링지화 (令计划) 의 아들이 차사고로 사망되고, 구글이 중국에서 퇴출했으며, 관영매체에서 볼 수 없었던 파룬궁 박해 소식을 보았을때 경악했다. “중국의 언론자유는 엄격한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중공관원들은 탐

오와 부패로 폭로되기전에는 모두 위광정 하지만 일단 탄로나면 그 속에는 파렴치한 이익관계와 내막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재서야 나는 모든 체제부터 부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언론이 중공에 의해 단단히 공제되었기에 부정적인 보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명닝은 리원량 (李文亮) 의

전염병이 발생한 후 명닝은 리원량 (李文亮) 의사가 훈계받은 소식을 듣고 중국매체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안전을 주의하라고 알렸다.

사가 훈계받은 소식을 듣고 중국매체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안전을 주의하라고 알렸다. 명닝은 말했다: “처음에는 집 식구와 신변의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세계에 퍼지면서 나는 이번 중공이 역병을 공제한 조치는 대단히 불도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중공이

보도하지 않아 전염병의 만연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재난이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고,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신변의 사람들에게 각성하라고, 더는 중공을 믿지말라고 말 할 것입니다.”

명닝은 먼저 동학, 친구들에게 이런 진상을 말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초 그의 핸드폰이 차단당했다. “나의 행위가 그들의 관심을 받았기에 더 이상 외국에서 이런 언론을 발표하면 나의 가족마저 연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 하지말고 폭로해야 합니다. 이는 인권과 언론자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명닝은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원사이트에 그가 가입했던 중공소선대와 공청단에서 탈출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중공은 역병진상을 은폐해 백성들을 고통속에 빠지게했다. 친신의 고통은 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해 시비를 가르게 했다. “일방”이란 이름으로 대기원 사이트에 ‘삼퇴’한 사람이 댓글을 남겼다: “거짓, 광패짓, 경찰로 나라를 다스리는 공산당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초개로 여깁니다. 이런 당은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미 3억 7천만 중국인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보아내고 중공조직에서 탈출하여 중공과 멀리하고 청백한 자유인으로 됐습니다.

밍후이왕

길림성 연변사회보험관리국은 주희옥의 퇴직금 20 만원을 갈취하다

[명후이왕] 길림성 연변지구 파룬궁수련생 주희옥은 ‘진선인 (真善忍)’을 신앙하여 좋은 사람이 되려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2 차례, 도합 8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회보험관리국은 그의 동생과 아들을 핏박해 이미 받은 퇴직금 207131.99 원을 납부하게 했다. 주희옥은 이미 법원에 기소했고, 이미 입안 되었다.

2020년 5월부터 길림성 연변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예전에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던 파룬궁수련생의 퇴직금 지급을 중지시켰다. 동시에 억울한 판결을 받고 감금당한 기간에 이미 수령한 전부 퇴직금을 ‘부당이득’이라는 명의로 단번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만약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편죄 (欺詐罪)”로 사회보험국 혹은 사법기관에 신고해 몇배의 벌금을 안길 것이고, 만약 본인에게 돈이 없으면 복형기간 퇴직금을 수령받은 가족이 책임지며, 혹은 본인 월급에서 채 납부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의 월급에서 계속 잘라내야 한다고 협박했다.

퇴직금은 퇴직인원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하며,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절대적 권리이다. 수감자의 퇴직금을 잘라내는 (특히 파룬궁수련생은 위법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행위는 위헌위법

행위다. 길림성 연변지구 사회보험국에서 ‘부당이득’, “기편죄”로 파룬궁수련생 주희옥과 그의 가족을 위협해 퇴직금을 납부하게 한 행위도 위법이다.

아래는 주희옥의 서술이다.

퇴직금 추징 과정

나의 이름은 주희옥이다. ‘진선인 (真善忍)’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두차례, 매년 4년의 불법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소위의 그들이 말하는 ‘부당이득’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 어떤 ‘부당이득’도 없다. 사회보장국의 이런 말들은 위법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더러 먼저 적게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급에서 계속 잘라내면 된다고 요구했지만 나는 승인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사회보험국의 감찰국 임택민 (任泽民)은 자료를 만들어 인사국 (人社局)에 보내 나에게 배로 벌금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행위는 위법이란 자료를 주었지만 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태도가 오만하며 무리했다. 그들은 자료를 만든후 나에게 서명시키려 시도했지만 나는 승인하지 않았고, 서

▼ 주희옥이 받은 일부분 고문시연



▲ 허공에 달아매기



▲ 쪽결상 앉기



▲ 침대에 묶기



▲ 사인침대



▲ 여러개 전기곤봉 충격



▲ 혹독하게 구타하기



▲ 끌고 다니기



▲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명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위협해도 소용이 없자 또 수법을 바꾸어 가족에게 박해를 가했다. 그들은 나의 동생을 찾았다.

내가 처음에 불법으로 4년 감옥에 감금당했을 때는 줄곧 월급을 전부 지급받았으며 월급이 오를 때도 영향받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에 있는 기간에는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집에 돌아와 2년기간 더 받은 월급까지 합하면 도합 207131.99 원이라고 했다. 원래 근 3000 원이던 월급이 1400 여원으로 줄었다.

두번째 불법으로 감옥에 감금했을때는, 비록 4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실제 3년반을 (4면에 계속)

(3면의 계속) 감금 당했다. 내가 단식으로 반박해를 하였기에 구류소, 감수소, 노교소에서 모두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집에 있는 반년동안 지급받은 퇴직금마저 전부 잘라냈다. 그들은 석방증에 감형이란 것이 없는데 누가 증명하는가? 라고 변명했다. 내가 법률문건을 보자고 요구하자 그들은 나에게 사회보험국의 문건을 보게했다.

내가 납부하지 않자 그들은 가족에게 독촉했다. 내가 감금된 기간 동생이 나를 도와 월급을 수령했기에 사회보험국인원은 나의 동생에게 배로 벌금시킨다고 위협해서 동생은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원인은 내가 처음에 불법형을 선고받았을 때 우리 두형제는 변호사를 찾았는데 변호사는 “파룬궁이 전단지 배포했는데 전단지는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기에 죄가 없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기에 동생은 연류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동생은 자신이 수령받아 보관했던 나의 월급과 동생이 번 돈까지 끌어 모았으나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겨우 15 만원을 모았다. 나머지 5 만원은 나더러 서명하고 월급에서 잘라낸다고 했다. 동생은 내가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아들에게 알려 결국 아들은 또다시 나머지 돈마저 지불했다. 그래서 도합 207131.99 원을 전부 납부했다. 그리고 나의 월급도 1463.08 원으로 감소됐다. 사당이 나에게 준 경제박해는 아들과 동생까지 연류시켰다.

사회보험국은 위법이다. 나는 퇴직금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이미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에서는 이미 입안했다.

행운스럽게 대법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다

나는 인생길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 겨우 출로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파룬궁이다. 나의 남편은 32 세 나이에 일찍 병으로 사망했고 게다가 친정집에도 아들이 없기에 나는 여인의 쇠약한 몸으로 두 가정의 중임을 짊어져야 했다.

나는 생존을 위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저보험인 어머니를 위해 돈을 벌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했다. 돈을 벌기위해 나는 100 여근 되는 철문도 메나르기도 했고, 거리에서 콩나물과 김치 등도 팔았는데 결국 최후에 남겨진 것은 전신에 병뿐이어서 내장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곳이라고 없어 정말 사는 것이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파룬궁을 소개했다.

처음에 나는 책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공의 무신론 영향때문에 받아드리기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좋은 길이 없었기에 ‘진선인(真善忍)’의 요구에 따라 했다. 내가 이전에 미신이라고 여겼던 일들은 파룬궁책에서 모두 내 눈앞에 뚜렷이 나타났다. 와! 본래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본귀진 하는 것이 었고, 일체 인생에서의 불행은 모두 나 자신이 조성한 것이 로구나! 내가 매한마디 말, 매 한보 걸음마다 <전법륜(轉法輪)>에서 알려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자신을 수련할 때마다 나의 신체는 점점 가벼워 졌는데 무슨일을 하든지 힘이 솟았다. 몇달후 약간 멀었던 귀마저 “평”하는 소리가 나더니 전부 열렸다. 와! 원래 한마디 진짜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반드시 끝까지 수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러 차례 불법적인 감금과 징역형 박해를 받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원흥강택민은 질투 때문에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발동했다. 나는 파룬궁(法輪功)의 공정과 사부님의 청백을 위해 공개적으로 연공하고, 공개적으로 진상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의 현수막을 펼쳤다. 파룬따파는 정법이기에 나는 당당하게 수련했다. 이때문에 공안국에서는 나를 44 차례 납치했다. 그중 북경으로 5 차례 갔고, 정신병원에 2 번 감금되고, 불법으로 노교소에 3 번 가고(한번은 노교소에서 받지 않았다), 세뇌반과구류소에도 납치당했고 어떤 때에는 파출소에도 온하루동안 감금돼 있었다. 2011년 7월에 불법 판결을 받았을 때는 박해로 인해 신체가 아주 형편없었기에 세뇌반 구류소, 감수소에서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불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번은 모두 집에서 바로 감옥에 보냈다.

공안국, 구류소, 노교소, 감옥에서 몇백번 매를 맞았는지 나는 이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단식으로 몇십번 항의했고, 전기곤봉에 전기충격을 20 차 좌우 받았고, 10 여차례 수갑을 채웠는데 수갑을 채운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은 8 개월이 넘고, 끌고 다니고, 당기고, 달아매고, 묶어놓는 모든 고향을 겪었다.

2015년 6월 21일, 나는 첫번째 감금기한이 끝나 집에 돌아온후 2017년 4월 두번째 불법 징역형을 받기전 강택민고소에 적극 참가했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 까지 3 차례 북경에갔다. 돌아온후 2 차례 불법구류 당했다.

나는 감옥에서 돌아온 후 지금은 또 중공이 이용한 사회보험관리국의 경제박해를 받았기에 나는 고소했고, 이미 법원의 입안통지를 받았다.